

담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주력'

필리핀 2개 지자체와 MOU 체결...29명 입국해 농가 배정

결혼이민자 친척 계절근로자도 30명 입국해 농가 일손 도와

담양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7월 필리핀 2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 지역 농가와 연계하는 등 딸기 수확기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8일에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29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정됐으며 연말까지 30여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에서 온 29명은 사전교육, PCR검사 등의 절차를 마치고 관내 농가에 곧바로 투입되어 약 5개월간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 친척 계절근로자도 30명이 입국해 농가 일손을 돕고 있으며, 연말까지 30여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

정이다. 특히, 담양군은 지난 10월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MOU 체결과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 농촌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지자체인 나티비다스 시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두 지자체간의 우호 협력 및 근로자들과 만남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야구 전지훈련지 '각광'

화순야구장, 올해만 2000여 명 다녀가...지역경제 활성화 보탬



지난 해 화순군과 전남도교육청이 53억 원 투자해 조성한 이양면 소재 화순야구장이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화순군은 25일부터 27일까지 화순초등학교와 화순야구장에서 초등 야구팀 추계전지훈련과 화순고인돌배 전국초등 야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계전지훈련으로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등 전국 8개 초등학교 야구팀의 선수, 관계자 등 250여 명이 화순군을 찾았다.

군의 적극적인 하계·추계 전지훈련 유치 노력으로 올해에만 2000여 명의 선수, 관계자가 화순야구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군은 공인 규격(1만8000㎡)의 야구 전문 구장으로 야간 훈련이 가능하고 최고의 훈련 시설이 마련된 점과 훈련장 무료 이용, 심판비 일부 지원 등 훈련 활동의 적극 지원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을 '체육형 스포츠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스포츠와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안전한 훈련 여건을 조성해 스포츠메카 화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철기 기자

구례군, '바로크 어드벤처 - 하멜, 그리고 조선' 개최

구례군은 30일 저녁 7시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음악극 공연 '바로크 어드벤처 - 하멜, 그리고 조선'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역사와 맞물려 있는 이야기로 예기치 못한 파도에 휩쓸려 조선에 표류한 하멜, 그의 기록에 바탕을 둔 하멜의 여정을 담은 스토리를 음악으로 풀어낸 서양과 한국 문화예술의 융합적인 음악극이다.

공연팀 '코리아안 바로크 소사이어티'는 바로크 및 중세, 르네상스, 고전 등 다양한 시대의 연주법과 역사 및 문화 등을 연구하여, 당시

음악을 오늘날 청중들과 함께 나누고자 창단된 고음악 전문 연주 단체이며, 서양과 조선의 음악, 그리고 연극의 융합을 통하여 장르를 초월하며 객석과 소통하는 공연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문화소외지역에 수준 높은 우수 공연을 제공하고 지역민 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의 2022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료 공연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자치학교' 개강...12월 16일까지

나주시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한 '2022 도민 정책학교'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28일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나주시 자치학교'를 개강했다고 밝혔다.

자치학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시민 35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6일까지 총 10차시에 걸쳐 빛가람동 스페이스코워 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이해', '참여와 지지 기반 생태·환경 분야 공동체 연대 전략'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6회), 선진지 현장 탐방(3회), 리더십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 탐방은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성공 사례로 꼽히는 '전주문화재단', '서화동 예술인마을'(12월 2일), 주민공동체 활성화 우수 마을인 '순천시 저전동 마을정원'(12월 9일), 생태환경 관련 선진 지역인 '여수 가시리환경교육센터'(12월 16일)로 갈 예정



이다.

시는 자치학교를 통해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갈등 해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체 연대 등 분야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에 접목·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학교는 민선 8기 핵심 현안인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에 있어 주민 공동체의 역할을 키우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평생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곡성군, 학교폭력 예방 위한 아웃리치 실시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22일 곡성중앙초등학교에서 또래상담자, 1388청소년지원단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래상담자는 학교 내에서 고민을 가진 친구를 도우며 공감 배려 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주로 청소년 유관기관, 약국, 학원, 택시, 지역상인 등 지역사회 내 자

발적 참여 조직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저학년 대상으로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또래관계를 강화하는 '얼굴

감정 표현하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학년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반려식물 심기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또래상담자와 1388청소년지원단이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필요한 경우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061-363-9586) 또는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곡성=양혜영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태세빌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